

이 기사는 하루를 4분하여 사람의 정기(正氣)와 병기(病氣)가 어떻게 소장(消長)하는지를 언급한 내용이다. 특별히 한낮에는 정기가, 한밤에는 사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묘사된 것은 흥미로운데, 아마도 음양설의 영향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 같다. 하루를 4분한 것은 계절에 빗맞기 때문인데 아침은 봄이고 낮은 여름이며 저녁은 가을이고 밤은 겨울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루의 등분도 계절의 순환이라는 자연의 질서에 순응한다는 관념을 보여주는 셈이다. 그런데 시간의 영향은 이처럼 단순하게 모든 질병에 적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질병의 종류에 따라 하루 중의 시간의 영향이 다르다는 인식도 존재했다. 예컨대, 간계통의 병은 아침이 혜의 상태, 하포(下哺), 신시(申時)에 심(甚), 한밤이 정(靜)이 되지만, 심장병계통은 한낮이 혜이고 한밤은 심, 아침은 정이 된다.⁵⁶⁾

〈표 2〉 시간에 따른 오장병의 변화

	평단(平旦)	일출(日出)	일중(日中)	일질(日晡)	하포(下哺)	사계(四季)	야반(夜半)
간장병	慧				甚		靜
심장병	靜		慧				甚
비장병		甚		慧	靜		
폐 병			甚		慧		靜
신장병					靜	甚	慧

동시에 질병은 계절과 특히 8절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였는데, 이 중 하지와 동지전후 시기는 음·양기의 전환시기로 인간 생리활동에의 영향이 가장 큰 시기였고, 동지 전후는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으로 인식되었다는 것이다.⁵⁷⁾ 이러한 예로부터 병의 종류와 시간의

56) 『黃帝內經素問』(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卷 7, 藏氣法時論, pp. 318-321.

장단이 서로 맞물려 영향을 준다는 관념이 당시 팽배했음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더구나 달의 차고 기우는 변화가 인체의 생리활동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신념은 매우 중요하였고, 복약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었다. 양생(養生)을 위해 실행하는 단식법의 일종인 벽곡(辟穀)을 할 때 석위(石韋)를 먹을 경우, 달의 원결에 맞게 그 양을 가감한다는 언급이 있다.⁵⁸⁾ 이것이 당시 의가의 여러 학파 중 황제파(黃帝派)의 한 분파인 소사파(少師派)의 논리라고는 하지만,⁵⁹⁾ 신체의 활동리듬과 달의 주기를 맞추어야 한다는 신념의 명확한 반영인 것은 분명하다. 인체의 구조가 천과 일치하므로 인체의 생리기능의 운행도 천지와 일치해야 한다는 논법인 것이다.

침구시술에서도 물론 혈기의 성쇠와 경맥 기의 출입 운행의 시간을 고려해야 했으므로 시간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침을 놓을 때도 일월·성진·사시·팔정(八正)의 기를 점후(占候)한다는 것은⁶⁰⁾ 바로 이러한 증거이다. 특히 침구치료에서는 시술의 금기일이 존재했다는 것도 큰 특징이다. 갑·을일에는 머리부위에 침놓는 것을 금하고, 병·정일은 어깨와 목부위에, 무·기일은 사지와 복부에 경·신일은 허벅지와 무릎부위, 임·계일은 발부위에 침놓는 것을 금한다고 말한다.⁶¹⁾ 이외에 8절기의 무·기일은 대금(大禁)의 날이므로 인체와 구궁의 대응관계를 고려하여 침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⁶²⁾ 오행설과 구궁설(九宮說)

57) 傅維康 吳鴻洲, 『黃帝內經導讀』, 巴蜀書社, 1992, p. 192.

58) 『却穀食氣』(魏啓鵬, 胡翔驊, 『馬王堆漢墓醫書校釋』(貳), 成都出版社, 1992), p. 1, “却穀者食石韋 朔日食質 日駕一節 旬五而[止] [旬]六始銑 日□[一]節 至晦而復質 與月進退”.

59) 山田慶兒,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 『東方學報』 52, 1980, p. 222.

60) 『黃帝內經素問』 卷 8, 八正神明論, p. 367, “凡刺之法 必候日月星辰 四時八正之氣 氣定乃刺之”.

61) 『黃帝內經靈樞』(下冊) 卷 9, 五禁, p. 178.

62) 『黃帝內經靈樞』(下冊) 卷 12, 九針論, p. 404, “其大禁 大禁太一所在之日 及諸戊己”.

의 결합에 의한 영향이 분명하며, 시일금지(時日禁忌) 중 혈기와도 일정 정도 관련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한 논거는 찾기 어렵다. 반면 간장병자는 경·신일에, 심장병자는 임·계일, 비장병자는 갑·을일, 폐병자는 병·정일, 신장병자는 무·기일에 각각 사망한다고 예측했던 사망기일 추정법은⁶³⁾ 간지오행설에 의한 것으로 오행상극관계를 고려한 것이 분명하다. 간은 목에 배당되는데, 목극금(木克金)으로 목과 금은 상극관계에 있으므로 금에 해당하는 경신일을 사망일로 추정한 것 같다. 나머지는 이 방식으로 유추하면 된다.

한편 치료에서 고려된 또 다른 요소는 기상의 변화였다. 이상기후가 발병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4계절의 기후변화와 질병이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기후의 변화로 지목된 현상은 주로 풍(風)·한(寒)·서(暑)·습(濕)·조(燥)·화(火) 혹은 열(熱)의 6기였다. 정상상태에서는 이 6기가 만물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지만, 이것이 과부족이 될 경우나 혹은 그 시기에 맞지 않게 나타날 경우는 사기로 변하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관념이다. 이러한 인식하에 형성된 이론이 이른바 오운육기론(五運六氣論)이다. 오운육기론에서 오운은 오행의 5덕을 가리키는데, 오운을 천간에 배당하고 육기는 지지에 배당하여 매 1년간의 질병발생의 규율과 특징을 이론화한 것이다.⁶⁴⁾ 한대 이 이론은 아직 완비되지 못하고 서로 다른 관점에 혼재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는데,⁶⁵⁾

63) 『黃帝內經素問』 卷 5, 平人氣象論, p. 253.

64) 五運六氣論에서 五運의 天干배당은 木火土金水의 五行相生 순서에 甲乙, 丙丁, 戊己, 庚辛, 壬癸를 각각 붙여넣은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과 차이가 없으나, 六氣의 地支배당은 사뭇 독특하다. 우선 六氣를 3陰(厥陰, 少陰, 太陰), 3陽(少陽, 陽明, 太陽)으로 나누고, 또 六氣중 巽와 火는 기본상 같은 부류이므로 五行에 맞추기 위해 이를 각각 君火, 相火로 호칭한다. 그 뒤 地支를 배당하는데 그 결과는 子午는 少陰君火, 寅申은 少陽相火, 丑未는 太陰濕土, 卯酉는 陽明燥金, 巳亥는 厥陰風木, 辰戌은 太陽寒水가 된다. 地支를 이렇게 배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人民衛生出版社, 1984; 1990, pp. 19-20을 참고하라.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되고 있는 것 같다. 오운은 대운(大運), 주운(主運), 객운(客運)으로, 육기는 주기와 객기로 각각 나뉜다. 대운은 매년 기후변화와 이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오장육부의 변화의 일반규율이 고, 주운은 매년 5개 운계(運季)의 일반적이고 정기적인 기후변화를 말하며, 객운은 매년 5개 운계 중에 나타나는 특수변화에 해당한다. 한편 주기는 주운의 의미와 기본적으로 같아 매년 24절기기후의 일상적인 변화인 반면, 객기는 매년 절기상의 이상변화를 의미한다. 운과 기의 성쇠는 운기 각각에 배당된 간지의 오행관계가 상생인지 상극인지를 판별하여 결정한다.⁶⁶⁾ 운기성쇠가 판별되면 주와 차가 결정되고, 또한 매년의 복잡한 기후변화를 추산할 수 있게 된다. 상극관계에 의거 기생운(氣生運)은 순화(順化), 기극운(氣克運)은 천형(天刑), 운생기(運生氣)는 소역(小逆), 운극기(運克氣)는 불화(不和)가 되는데, 순화의 해는 변화가 비교적 적으나 소역과 불화의 해는 변화가 비교적 크고 천형의 해는 변화가 매우 격렬하다는 논법이다.⁶⁷⁾ 이러한 운기학설은 궁극적으로 매년의 기후변화를 추측하여 이에 상응하여 어떠한 질병이 유행할 것인지를 알아내며, 동시에 일반적 기후변화 외에 매년 특수한 기후변화가 생길 경우 그때 유행 가능한 질병은 무엇인지 추측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대책을 통해 치료와 예방의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기론은 60간지 주기만을 사용하여 기후와 질병을 기계적으로 대응시킴으로 질병 자체의 변화규율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더구나 실제의

65) 廖育群, 「東漢時期醫學發展之研究」, 『傳統文化與現代化』, 1994-3期, pp. 70-71.

66) 辛亥年을 예를 들면,辛은 水에 해당되므로 辛亥年의 大運은 水運이고, 地支 亥는 3陰중의 厥陰에 해당되는 風, 오행은 木에 해당되므로 辛亥年을 담당하는 司天의 氣는 風木이 된다. 그런데 水와 木은 水生木이므로 이를 運氣에 적용하면 運生氣이므로 이해는 運盛氣衰가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運生氣, 運克氣는 運盛氣衰의 현상이 나타나고, 氣生運과 氣克運은 氣盛運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p. 26 참조).

67) 方藥中, 許家松,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p. 27.

천상(天象)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상당한 결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⁶⁸⁾ 그렇지만 운기론은 천체의 순환원리 속에서 질병예측의 규칙성을 발견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방사의학(方士醫學)의 일련의 성과로 평가할 수는 있고 절기와 운기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흥미를 끈다.

이렇게 의술에서 시간 및 기상요인을 강조한 것은 치료상의 길흉을 고려한 결과이다. 그러나 의술에서의 길흉의기(吉凶宜忌)는 이것뿐만은 아니다. 마왕퇴백서(馬王堆帛書)의 『우장도』(禹藏圖)는 태반은 태아생명의 근원인데, 이것은 모태와 분리된 후에도 일정기간 태아와 감응, 영향을 미치므로 태반매장의 시간과 방위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 것,⁶⁹⁾ 산부와 의 내왕과 접촉을 꺼리는 기휘풍속 등은⁷⁰⁾ 일종의 산과 금기에 해당될 것이지만, 지리환경 및 방위가 인간수명의 장단과 관련된다고 주장된 것도⁷¹⁾ 매우 중요한 의학상의 방위금기에 속한 것으로 간과할 수 없다. 이런 금기들은 주로 의료경험의 누적과 수술(數術)의 논리상 발전에 따른 예방의학차원에서 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의학생활에서의 시간은 곧 효율과 신속을 강조했던 행정적 시간으로서의 시제보다는 오행이나 팔괘로 도식화된 관념화된 시간이 보다 중요하였다. 질병과 생명을 다루는 만큼 자연과 다만 절기나 계절은 여전히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간관념이었다는 점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⁷²⁾

68) 鄒學熹, 鄒成永,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9, pp. 298-2990.

69) 李建民, 『馬王堆漢墓帛書·禹藏埋胞圖'箋證』,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65-4, 1994, pp. 763-780.

70) 『論衡』 卷 23, 四諱篇.

71) 『黃帝內經素問』 五常政大論, “東南方 陽也 陽者 其精降于下 故右熱而左溫 西北方 陰也 陰者 其精奉于上 故左寒而右涼 … 陽精所奉 其人壽 陰精所降 其人夭”.

72) 5장의 일부는 이 논문의 전체 구도를 위해 卒考, 『중국 고대 方士醫學의 養生術과 그 사회적 영향』(『中國古中世史研究』 18, 2007, pp. 300-304를 수정 보완하였다.

6. 맺음말

이상에서 보았듯이 고대중국에서 12시제나 16시제 등 통일된 시제가 관철되었다고 해도 문서행정, 농사활동, 제사와 의례, 의료활동 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각기 다른 시간관념과 시간분할의 적용되었다.

고대 중국의 문서행정에서는 하루를 반일, 1/3일씩 세분하기도 했지만 시각이나 분단위의 세밀한 시간까지 기록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계시행정을 구축하였다. 행정처리의 속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시간의 정밀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다양한 시칭의 존재는 문서행정의 효율성을 뒷받침하는 도구였을 것이다. 또한 상계문서의 작성 등에서는 한 해의 치적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세종(歲終)이라 하여 연단위 시간의 종점을 중시하였다. 반면에 행정에서 계절에 따른 노동량의 기준변화 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농사활동이나 제사의례, 의료활동 등 문서행정이외의 분야에서는 사계절이 가장 중요한 지표였다. 계절의 변화가 곧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근거였으며, 자연의 규율에 합치하고 시간의 순서에 순응하고자 했던 고대인들에게 사계절은 절대적인 지표였던 것이다. 농사활동에서는 계절 이외 월령이나 절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의료활동에서는 오행이나 팔괘에 의한 5단계 혹은 8단계 시간구분법 및 질병의 차등에 따른 시간분할을 자주 활용하였다. 특히 의료활동에서의 시칭은 문서행정과도 확연히 다른 명칭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의 독특성이 엿보인다. 여하튼 이 두 분야는 시간의 순환과 반복 즉 주기성이라는 특성과 비교적 잘 부합한 영역이었다. 그러나 제사와 의례에서는 원회의나 곡삭 등에서 보듯 초하루 등 시간단위의 시작점이 강조되기도 하고, 혹은 주야의 시작점 등 음양이 교대되는 특정한 시점이 중시되거나 상신일(上辛日)처럼 특정시점에 재계

와 자신(自新) 등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제국 내 통일된 시제와 무관하게 고대사회의 각각의 활동분야와 영역의 실제생활에서는 각기 다른 시간관념과 시간활용이 나타났던 것이다.

시간활용의 차이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위에서 언급한 네 분야 이외에도 점복(占卜)분야가 있을 것이다. 점복은 기본적으로 시간이나 공간의 선택법이기 때문에 점술가들의 시간인식과 활용의 문제는 매우 중요했지만, 추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居延新簡』(文物出版社, 1990)
『居延漢簡』(『居延漢簡釋文合校』, 文物出版社, 1987)
『管子』(『管子校注』, 中華書局, 2006)
『南齊書』(中華書局標點校勘本)
『論衡』(『論衡校釋』, 中華書局, 1990)
『敦煌懸泉置月令詔條』, (中國文物研究所 編, 中華書局, 2001)
『馬王堆漢墓醫書校釋』(貳),(魏啓鵬, 胡翔麟, 成都出版社, 1992)
『史記』(中華書局標點校勘本)
『四民月令校注』,(石聲漢 校注, 中華書局, 1965)
『岳麓書院藏秦簡』(參) (上海辭書出版社, 2013)
『呂氏春秋』(정하현 역, 『여씨춘추』, 소명출판, 2011)
『禮記』(孫希旦 撰, 『禮記集釋』, 中華書局, 1989)
『張家山漢墓竹簡』(文物出版社, 2006)
『周禮』(『周禮鄭注』 四部備要本, 臺灣中華書局)
『晉書』(中華書局標點校勘本)
『春秋穀梁傳』(『春秋穀梁經傳補注』, 鍾文丞, 中華書局, 1996)
『春秋左氏傳』(楊伯俊 編, 『春秋左傳注』, 中華書局, 1990)
『漢書』(中華書局標點校勘本)
『鶴冠子』(四部備要本)
『黃帝內經素問』(郭霽春 主編, 『黃帝內經素問校注』, 人民衛生出版社, 1995)
『黃帝內經靈樞』(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 人民衛生出版社, 1995)
『淮南子』(『淮南鴻烈集解』, 中華書局, 1989)
『後漢書』(中華書局標點校勘本)

2. 2차 자료

- 江曉原, 鈕衛星 著 (2005), 『中國天學史』, 上海人民出版社.
- 傅維康 吳鴻洲 (1992), 『黃帝內經導讀』, 巴蜀書社.
- 吳國盛 (2006), 『時間的觀念』, 北京大學出版社.
- 鄒學熹, 鄒成永 (1989),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 彭衛 楊振紅 (2002), 『中國風俗通史(秦漢卷)』, 上海文藝出版社.
- 馮時 (2007), 『中國天文考古學』,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郝樹聲, 張德芳 (2009), 『懸泉漢簡研究』, 甘肅文化出版社.
- 胡家聰(1995), 『管子新探』,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金谷治(1987), 『管子的研究—中國古代思想史の一面』, 岩波書店.
- 李成珪 (2010), 「計數화된 인간」, 『中國古中世史研究』 24.
- 李成珪 (근간), 「秦漢帝國的 計時行政」.
- 崔德卿 (2002), 「中國古代的 物候와 農時豫告」, 『中國史研究』 18.
- 崔振默 (2007), 「중국 고대 方士醫學의 養生術과 그 사회적 영향」, 『中國古中世史研究』 18.
- 崔振默 (2008), 「節氣와 중국 고대인의 생활; 銀雀山漢簡의 “30時”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07집.
- 高恒(1999), 「漢代上計制度論考; 兼評尹灣漢墓木牘“集簿”」, 『簡牘研究』 1999-1.
- 廖育群 (1994), 「東漢時期醫學發展之研究」, 『傳統文化與現代化』, 1994-3期.
- 方藥中, 許家松 (1990), 『黃帝內經素問運氣七篇講解』, 人民衛生出版社.
- 樊志民 朱宏斌(2002), 「月令書與中國傳統農業管理思想之嬗變」, 『中國農史』 2002-3.
- 傅道彬(2009), 「“月令”模式的時間意義與思想意義」, 『北方論叢』 2009-3.
- 傅振倫(1990), 「漢代計時方法」, 『文物春秋』 1990. 4.
- 尙民杰 (1999), 「居延漢簡時制問題探討」, 『文物』 1999-10.
- 宋會群 李振宏 (1993), 「秦漢時制研究」, 『歷史研究』 1993-6.
- 于振波 (2010), 「秦律中的甲盾比價及相關問題」, 『史學月刊』 2010-9.
- 李建民(1994), 「馬王堆漢墓帛書‘禹藏埋胞圖’箋證」,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集刊』 65-4.
- 李均明 (2009), 「秦漢 文書制度考察」, 『동아시아 자료학의 가능성』, 성균관대학

교출판부.

- 李天虹(2012), 「秦漢時分紀時制綜論」, 『考古學報』 2012-3.
- 李解民(1996), 「秦漢時期之一日十六時制」, 『簡帛研究』 2.
- 李欣 (2012), 「東漢“上陵之禮”考述」, 『咸陽師範學院學報』 2012-9.
- 張德芳 (2004), 「懸泉漢簡中若干“時稱”問題的資料」, 『出土文獻研究』 6.
- 張樹國(2012), 「詩性時曆: “月令”與漢代祭祀詩關係探析」, 『杭州師範大學學報』 2012-9.
- 張瑜(2008), 「試論漢代“元會儀”所體現的音樂政治論思想」, 『交響: 西安音樂學院學報』 27-4.
- 田家溧(2011), 「告朔禮考」, 『華北水利水電學院學報』, 27-2.
- 陳久金(1983), 「中國古代時制研究及其換算」, 『自然科學史研究』 2-2.
- 陳夢家(1980), 「漢簡年曆表敍」, 『漢簡綴述』, 中華書局.
- 詹冬華(2008), 「中國古代三種基本的觀時方式: 切入古代時間意識的一個維度」, 『文史哲』 2008-1.
- 山田慶兒(1980), 「九宮八風說と少師派の立場」, 『東方學報』 52.

원고 접수일: 2013년 10월 31일

심사 완료일: 2013년 11월 23일

계재 확정일: 2013년 12월 3일

ABSTRACT

中国古代社会时间的活用

崔振默(首爾大學 人文學研究院)

本文主要推定在中国古代，虽然贯彻了统一的十二时制或十六时制，但在多元的生活领域却有不同的时间观念和分割时间的方式，可以考证此种推定的领域有文书行政、农业活动、祭祀与仪礼，以及医疗活动等，并且针对这些领域中具体的时间活用和事例进行比较分析。

古代中国的文书行政中，构建了将一天分为半日、或是三分为1/3日，并且记录时刻和分单位等详细时间的高效率计时行政。由于重视行政处理的速度，所以不得不关注时间的精密度和准确性。另外，上计文书的编写等过程中还包含整理完成一年的业务这一意义，以此表示岁终，重视年单位的终点。反面，虽然在行政上并不是没有随着季节变化而产生的劳动力变化，但其并不占很大比重。除农业活动、祭祀仪礼、医疗活动等文书行政以外的领域中，四季是最为重要的标准。因为，季节变化就是意味着会导致某种行为的发生。对于试图与自然规律相一致，顺应时间顺序的古代人来说，四季便是绝对的标准。农业活动中，除季节以外，月令、节气也占据不小的比重；医疗活动中主要活用根据五行、八卦区分开来的五分法或是八分法的时间分割法，以及随着疾病的次等进行时间分割的方法。在这两个领域是比较符合时间的循环和反复，即周期性这一特征的领域。但是，祭祀和仪礼中，元会议或是告朔

会强调如同朔日等时间单位的初始点，又或是重视昼夜的初始点等阴阳交替的特定时间点，如同像上辛日，在特定的时间点赋予斋戒、自新等意义。像这种与帝国内部统一的时制无关的古代社会的各个活动领域的实际生活中，会反映出各自不同的时间观念和时间的活用。

另外，有关时间活用的差异比较显著的其他领域，即除上述四个领域以外，还有占卜这一领域。由于占卜是基于时间和空间的选择法而进行的，占术家们的时间观念和活用也极为重要。这也是本文日后需要补充的部分。